

□ 질문의원 : 김 관 수

-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한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였으므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
 -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음
 - 경기도 감사실과 감사원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감사를 청구할 것임

(답 변)

- 김관수 의원님께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
 - 금번 보충질문은 김관수 의원께서 이미 본질문에서 하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7쪽에 걸쳐 문제가 없음을 상세히 답변하신 바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수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에서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자매결연을 구결한 골육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주장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음
- 먼저, “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특사도 아니고 중앙보훈단체장도 아닌 부천시장이 6.25 참전 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는가?”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
 -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여 아직도 생존해 있는 현지의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감동하였으며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은 이미 시장님께서 분

질문 답변 시 하셨으므로 시정 질문 답변서 38쪽을 다시 한번
참고하시기 바라며

- 대통령 또는 대통령 특사나 보훈 단체장만이 해외 참전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자격이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, 마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
 - 굳이 자격을 논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에 걸맞는 대표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86만 시민이 뽑은 부천 시장님이면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며
 - 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패를 받은 쪽에서 감격하여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위선양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외면하고 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지 저의를 이해할 수 없음
 - 50년 전 가난하고 이름 없는 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 싸운 사람에게, 이제는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된 나라에서 감사패를 드린 것을 외교적 굴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음
 - 참고적으로 금번에 베이커스필드시의 시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인사를 감동케 한 감사패는 제작비가 개당 10만원으로 두 분께 드렸음
- 다음, “현재까지 자매, 우호 도시에는 공식적으로 책을 한권도 보내지 않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책을 1만권이나 갖다 주었다고 불

때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?”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

- 이번에 베이커스필드시로 보낸 헌책 1만권은 한국 도서라고 말씀 드린 바 있으며 그 책을 주로 이용할 사람은 별도 설명이 없어도 당연히 현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
 - 어차피 한국 사람이 보는 책이지만 현지 시 정부에 기증하는 형식을 갖춘 것은 마치 내 아들에게 돌아갈 학비를 해당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석이조의 효과와 함께 국위 선양의 효과도 있음
 - 만일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 등 먼 외국의 지방도시를 여행할 때 우연히 1만권이나 한국도서가 비치된 도서관을 발견하였다면 그 책을 기증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
 - 현지 교민 2세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우수한 우리 한글을 알리는 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관수 의원께서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말씀하시니 비판을 위한 비판,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함
- 우리시를 방문도 하지 않고 부천시의 명예를 선양하지도 않은 베이커스필드시 한인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것은 굴욕적인 자매결연 구걸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
- 한인회장과 사무국장은 우리시가 영어권 교류를 위하여 국제화재단, LA 영사관으로부터 베이커스필드시를 추천 받고 현지에 연락할 때 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제공을 시작으로
 - 지난 4월 우리시 장기발전연수단이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였을 때는 현지 일정 섭외를 비롯하여 시설 안내를 성실하게 해주었으며

- 두 도시의 교류를 위하여 한인회장은 그동안 부천시를 2번이나 다녀갈 정도로 사심 없이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베이커스필드시의 주요인사와 한인회에 우리시에 대한 좋은 홍보를 함으로써 시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린것처럼 금번 방문에 큰 성과를 거두는데 밑거름이 되었음
 - 따라서 외국의 도시에 우리시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린 재외 동포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것이 누구에게 굴욕적 외교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
 -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시의 정책에 대하여 사심 없이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패 하나 드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시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습니까?
- 이상,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을 자매결연을 구걸하기 위한 외교적 굴욕이라고 주장한 김관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고 잘못된 주장임을 말씀드렸음
- 이런 사항임에도, 김관수 의원님께서서는 금번 보충 질문을 통해
- 시장과 담당 부서장은 국제교류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 영어, 중국어, 라틴어, 독어 등 외국어가 아닌 초등학생도 읽고 해석할 줄 아는 한글로 되어있는데 해석하지도 못한다는 등 금번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에 대하여 굴욕적인 자매결연을 구걸한 행사라고 하는 등 차마 표현하기 민망한 저속한 표현을 하셨음
 - 또한 “부천시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통령 특사인가”하신 사항은 문제 제기를 위한 이성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함

- 시와 시의회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비판과 견제,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 이상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임
- 그러한 면에서 우리 부천시 의회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2,000여 공직자는 시 집행부와 더불어 시정발전의 한 축으로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시는 부천시 의회의 모습에 존경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
- 이러한 가운데 유독 김관수 의원님께서만 오로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하셨고 또 본회의 질문 시 상세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소모적이고 사소한 흠결 내기에 집착하는 감정적인 행태로 질문을 일관 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
-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실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신 바
 - 감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동안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 김관수 의원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